

한국과 프랑스의 전통주머니 비교연구 -16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를 중심으로-

양지나⁺ · 이상은^{*}
건국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박사과정⁺
건국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Comparative Study on Korean Traditional Pocket and French Pocket -During 16th Century to 20th Century-

Jina Yang⁺ · Sang-Eun Lee^{*}
Ph. D Course, Dept. of Fashion Design, Konkuk University⁺
Prof., Dept. of Fashion Design, Konkuk University^{*}
(2006. 6. 23. 접수, 8. 25 채택)

Abstract

The definition of the 'Pocket', according to the Korean encyclopedia, is an accessory that a person puts in small belongings or money and carry on waist or holds with a hand. Since the pockets were not attached to the clothes at that period of time, the portable bag or pocket had been used without distinction of age or sex for carrying personal belongings. The pocket in France was also used in a similar manner, where it was used as a handbag to carry purse, comb, or a key by women during the middle ages. The pockets were decorated, made of quality material such as velvet, silk, or satin with splendid embroidery or beads.

This study closely examines the history of the pocket from late 16th century around Renaissance to early 20th century in France and during the mid Cho-Sun dynasty in Korea and compares the different kinds of patterns, symbolism, and the purpose of the pockets. In additi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ockets, belongings, and ornament are examined as well by thoroughly investigat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pocket of each country.

Key Words: Pocket(주머니), Patterns(문양), Symbolism(상징성), Unique characteristics(독특한 특성)

I. 서론

가방과 주머니는 수세기 전부터 남녀 모두에게

⁺Corresponding author ; Jina Yang
Tel. +82-11-9996-9286, Fax. +82-2-450-3304
E-mail : yangjina1121@hotmail.com

유용하게 쓰이는 휴대품 및 장식품이었다. 주머니의 역사는 기원전 9세기경 아시아의 부조에 나타난 네모난 손가방이 원형이라고 추측되며 고대 유럽의 그리스에서는 주머니를 허리띠에 매달았는데 이 풍습은 중세말기까지 계속되었다¹⁾. 의복에 주머니가 없었던 시절에는 손에 드는 가방과 주머니는 돈이나 소지품을 휴대하기 위하여 남녀노소가 모두 사용하였다.

한국의 선조들이 사용한 주머니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남녀노소 모두가 즐겨 사용하였고 무명이나 비단으로 만들어 썼다. 또한 한국 주머니는 실용성뿐만 아니라 뛰어난 장식성으로 조형미를 돋보이게 하고 삶의 행복을 추구한 상징성은 인간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다.

프랑스의 주머니는 중세 초기 지갑이나 빗, 열쇠고리를 넣고 다니던 손가방이 16세기 초 여성들 사이에 향수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여성들의 주요품목이 되었다. 이들의 주머니는 벨벳이나 실크, 새틴 등의 고급스러운 천에 화려하게 수를 놓거나 구슬로 엮어 장식하였다. 프랑스의 주머니는 복식과 마찬가지로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것으로써 그 당시의 생활상과 사회상을 반영하는 생활문화의 대표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²⁾.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조선시대 중기와 프랑스의 르네상스를 전후한 16세기 이후부터 20세기 초기까지에 나타난 주머니의 역사를 살펴보고 주머니의 다양한 종류와 문양, 상징성, 용도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또한 두 나라의 주머니 비교를 통해 각 나라 주머니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휴대 및 장식구인 주머니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한국 주머니

1) 역사

예부터 한국의 의복에는 주머니가 달려있지 않으므로 삼국시대부터 허리춤이나 가슴부근에

돈이나 소지품을 넣고 다녔다. 그러나 어느 때 부터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삼국유사>의 경덕왕 편 마지막에 보면 경덕왕의 아들 혜공왕이 돌때부터 즉위하기 까지 비단 주머니 차기를 즐겼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미 신라시대부터 착용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³⁾.

이와 같이 주머니는 필요성과 실용성뿐만 아니라 복식의 한 부분으로 장식성을 겸비하게 되었던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주머니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일찍부터 발달되었고 그 종류도 다양하다. 조선시대의 주머니는 후기의 유물이 많이 남아있고(국. 사립 박물관, 대학박물관등) 기록으로는 주로 궁중 낭발기(囊撥記-주머니 이름을 적어놓은 품목) 등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주머니는 궁중에서 정초 문안 때 왕과 왕비, 왕대비가 대신과 그 가족들에게 일 년 내내 평안을 위해서 하사품으로 내렸다. 궁중용 주머니는 수방상궁의 솜씨가 돋보이는 아름답고 품격 있는 귀한 것으로 여겼다. 조선시대 동국세시기를 보면 새해 첫 돼지날과 쥐날에 주머니에 붉은 콩 세알을 넣어 대신들에게 하사하였는데 이것은 농사에는 풍년을 기원하기 위한 것이었고 사람에게는 액을 물리치고 일 년 내내 건강하게 지내라는 뜻이 곁들여 있다. 주머니는 일반적으로 돈이나 소지품을 넣기 위하여 몸에 차고 다니거나 복식의 일부분으로 몸치레를 위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⁴⁾. 그러나 1894년 갑오경장 이후주머니는 급격히 모습이 사라졌다. 조끼에는 호주머니가 부착되어 있어 남성들이 사용하던 주머니의 역할을 대신했기 때문이다⁵⁾. 그 후 또한 신여성용 손가방의 출현으로 주머니 사용이 줄었다. 조선조말 1895년 최초로 양장차림 여성과 화려한 색채와 자수의 손가방이 등장하였다. 그것은 기존의 전통주머니에 새로 서양의 가방이 도입된 것이었으며 궁중에서 고종황비 엄비에 의하여 받아들여졌다. 그 후 1922년 영친왕비의 순종 알 현시 엄비께서 내린 수 손가방도 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에 서양 손가방이 유입된 것은 궁중여인들에서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겠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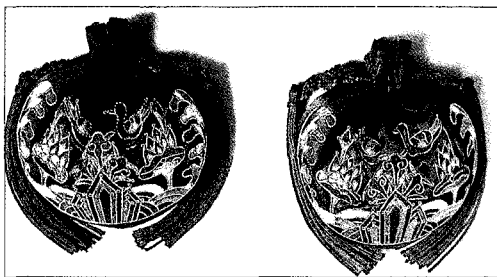
2) 종류

(1) 형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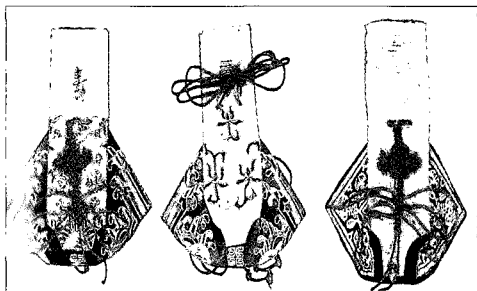
한국 주머니는 그 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둥근 모양의 두루 주머니(염낭)와 각진 귀주머니(각낭)로 나눌 수 있다. 두루 주머니는 입술에 잔주름을 잡고 밑은 둥근 형태로 된 주머니이며 중앙에 아름다운 수를 놓거나 하여 물건을 넣는 것 외에도 미적 장식구로도 큰 역할을 하였다. 귀주머니는 각이 져있는



<그림1> 수 손가방
궁중유물전시관 (2002). 황실복식의 품위. 서울:미술문화, p.139



<그림2> 두루주머니
차명순 (2002). 전통매듭과 현대의 만남. 서울: 출판사 느림, p.114



<그림3> 귀주머니
궁중유물전시관 (2002). 황실복식의 품위. 서울: 미술문화, p.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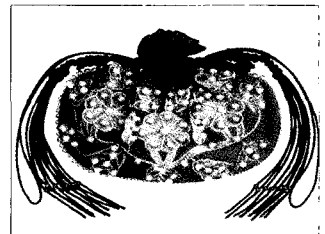
형태의 주머니이며 각종 비단으로 정사각형을 만들어 폭을3등분하고 양편술기를 중앙을 향해 앞뒤로 접어 육모주름을 잡는다. 목에 2개의 구멍을 내어 매듭으로 끈을 단다. 끈은 8사, 16사 등 동다회(童多繪)를 사용하였고 나비, 매화등 아름다운 문양이나 십장생 무늬 등을 사용하였다).

(2) 용도별

한국주머니를 용도별로 나누면 다양하게 구분 지을 수 있다. 주머니는 크기가 별로 크지 않고 몸에 차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진 것과 보관의 의미가 더 많은 고정된 모양의 주머니가 있으므로 휴대용 주머니와 보관용 주머니로 분류하여 보고자 한다.

① 휴대용 주머니

주머니는 궁중에서 왕과 왕비를 비롯하여 서민에 이르기까지 용도별로 다양하게 차고 다녔다. 궁중에서 왕이 차는 황룡자낭, 왕비의 봉황낭, 왕비 또는 비빈이 차는 진주낭이 있는데 이것들은 대부분 향을 넣은 향낭이다. 왕과 왕비가 정월 첫 해일에 벼슬아치와 그 가족에게 내리는 해자낭은 음양오행을 나타내는 청, 백, 적, 흑, 황색으로 꾸미고 그것에 장생문 자수를 한 오방낭이며 그해에 건강과 풍년을 기원하며 하사한 주머니이다.



<그림4> 진주낭
궁중유물전시관 (2002). 황실복식의 품위. 서울: 미술문화, p.133

일반 백성들은 돈이나 향, 약 등을 넣고 다니는 염낭, 귀주머니를 차고 다녔다. 이와 같이 휴대용 주머니는 평상시 필요한 물건을 항상 차고 다녔던 것으로 널리 애용된 것이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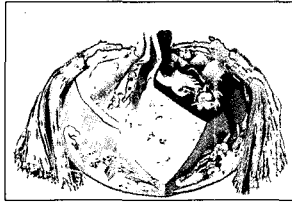
② 보관용 주머니

보관용 주머니는 휴대용 주머니와는 달리 사용 후에 주머니에 넣어서 벽에 걸어 두거나 일정한 장소에 놓아두고 사용하던 주머니이다. 그

것은 붓을 보관하는 필낭, 혼수로 만들어간 은수저를 넣는 수저집 등이 있으며 버전본을 넣어두는 버전본 주머니도 있다⁸⁾.

3) 문양 및 상징성

주머니를 아름답게 꾸미고 소망을 이루고자 한국의 주머니는 장생문과 길상문으로 장식하고 있다. 그와 같은 주머니의 문양과 상징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5> 오방두루주머니
권영길 외 (2002). 색이 만드는 미래. 서울: 도서출판 국제, p.101

(1) 자손번성

혼인 때 신랑이 차는 황낭은 아들 아홉과 딸 하나를 두라는 덕담의 뜻으로 팔알 9개와 목화한 송이를 넣었다.

(2) 벽사

궁중에서 정월 첫 해일에 임금과 왕비, 왕대비께서 신하에게 내리는 주머니인데 수를 놓은 수낭과 금박을 한 부금낭이 있다. 주머니 속에 붉은 콩을 한 알씩 넣어 일 년 내내 악귀를 물리치고 건강을 기원하는 것이다.

(3) 음양오행

한국의 음양오행 사상은 의. 식. 주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혼인 때 사용하는 오방낭은 함에 넣는 작은 주머니를 말한다. 오방낭에 넣는 것은 지방에 따라 약간씩 다르나 대체로 목화씨 9개, 밤3개, 대추3개, 팥을 넣어 자손번창의 의미를 부여했다. 오방낭(적, 청, 백, 흑, 황색 주머니)은 모두 갖추어 조화를 이루며 색상의 미와 함께 다복함을 기원하는 뜻이 있다고 보겠다.

(4) 길상 및 장생문

길상무늬나 장생무늬는 좋은 일, 행운을 기원하는 문양이고 장생무늬는 건강하게 오래살기를

염원하는 문양이다. 그러므로 길상무늬에는 수, 복(壽福)등 문자무늬와 석류, 목단꽃, 나비등을 자수하고 있다. 장생문은 해, 구름, 학, 사슴, 거북 소나무, 대나무, 바위. 불노초, 물의 무늬를 자수하여 꾸미고 있다⁹⁾.

2. 프랑스 주머니

1) 역사

최초의 주머니는 기원전 9세기 아시리아 고대 유적에 날개달린 신상의 손에 들려있던 사각형 백을 최초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유럽의 주머니는 초기에는 여성 전용 이라기보다는 도구의 역할로서 남녀 공동으로 쓰였다. 당시에는 의복에 주머니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머니와 가방은 주로 돈이나 개인용품을 넣고 다니는 용도로 쓰였다¹⁰⁾.

중세를 대표하는 주머니는 자루모양의 가죽 주머니로서 크기가 다양하였다. 이 후에는 끈이 달려있어 벨트나 거들에 달수 있도록 되어있는 가죽이나 헝겊으로 만든 주머니가 등장하였으며 여성들은 여기에 돈, 가위, 빗, 족집게 등을 넣고 다녔다. 귀족들의 것은 대개 보석으로 값비싼 천으로 만들어졌다. 초기에는 이러한 주머니를 지칭하는 용어를 찾아볼 수 없으나 11-12세기에 비로소 엘모너(Almoner)란 이름을 찾을 수 있었다. Almoner는 남자들이 십자군 전쟁에 나갈 때 벨트에 달고 다니던 주머니로서 성직자에게서 축성 받은 십자가를 보관하는 것이었다. 엘모너를 허리에 차는 풍습은 귀중한 물건을 가지고 다니기 위해서는 허리띠에 차는 것이 가장 안전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후에 여성들이 유행을 이어 받았으며 성과 신분의 구별 없이 사용되었다. 비단, 벨벳, 가죽 등으로 만든 엘모너에는 열쇠, 동전, 음식을 넣어 보관하였으며 핸드백의 모체가 된다¹¹⁾.

유럽에서는 16세기 말 남성 의복에 주머니가 부착되면서 자연스럽게 남자 주머니는 쓰이지 않게 되었다. 여성전용의 주머니는 18세기 말에 등장하여 1910년경부터 대중화되었다¹²⁾. 본 연구에서 프랑스의 주머니의 종류는 시대별로 살

펴보기로 하겠다.

2)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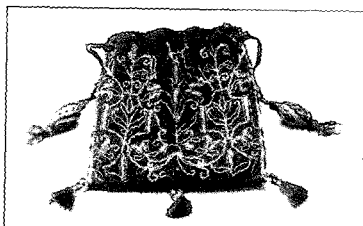
(1) 형태별

프랑스의 주머니의 형태는 시대별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중세시대부터 16세기까지 쓰였던 주머니는 둥근 모양과 네모난 모양의 주머니 형태로 나눌 수 있다. 둥근모양의 주머니는 한국의 복주머니와 비슷하게 아래쪽은 둥글고 윗부분에 주름을 잡을 수 있게 매듭이 되어 있었다. 네모난 주머니는 형태는 네모나며 윗부분은 동그란 주머니와 같이 주름을 잡을 수 있는 모양으로 볼 수 있다. 이 네모난 주머니는 양쪽 끝부분에 끈이 길게도 달려있었는데. 오늘날의 핸드백처럼 어깨에 맬 수 있었다. 네모난 모양의 주머니는 17세기에는 중요한 문서나 편지를 넣을 수 있는 모양으로도 만들어졌다. 이것은 편지 봉투모양으로 길게 생겼으며 그 위에 자수로 장식을 하였다. 18세기에는 Reticule이라고 불리는 작은 주머니가 유행하였는데, 레티클의 형태는 16세기부터 쓰였던 둥근 모양과 네모난 주머니의



〈그림6〉 둥근모양의 18C 프랑스 자수 주머니

Hendrikje Ivo (2004). Bags. Amsterdam: The Pepin Press, pp.43-44



〈그림7〉 네모난 모양의 17C 프랑스 실크 자수 주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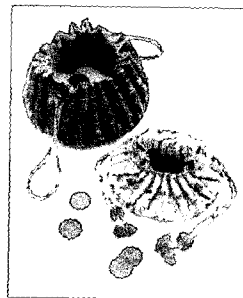
Hendrikje Ivo (2004). Bags. Amsterdam: The Pepin Press, pp.43-44

형태와 같은 모양이었다¹³⁾.

(2) 용도별

프랑스 초기의 주머니의 용도는 의복에 포켓이 없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파와 같이 돈이나, 개인물건을 넣고 다니는 용도로 쓰였다. 남성들은 카드놀이를 할 때 Gambling chips(도박할 때 쓰이는 장난감 동전)이나 동전을 넣어서 쓰는 용도로 도박주머니를 가지고 다니기도 하였다. 남녀가 가지고 다니던 작은 주머니에는 돈과 향이 나는 꽃잎 함께 넣기도 하였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이 작은 주머니를 새해 첫날 유럽의 각각 나라에 하사하였다. 그 안에는 꽃잎이나, 향이담긴 가루가 담겨져 있었다. 유럽의 각 국가에서는 결혼 선물로 이 작은 주머니 안에 돈을 넣어서 선물하는 것도 풍습 중 하나였다¹⁴⁾.

인간 재생 운동기간인 르네상스 시기인 16세



〈그림8〉 둥근 모양의 18C 프랑스 동전주머니
Hendrikje Ivo (2004). Bags. Amsterdam: The Pepin Press, p.45

기에는 인간중심, 향락 위주로 변화되면서 인간의 외모를 중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맞게 장신구의 사용도 많아졌다. 이 시기에는 여성의 수공예술을 통해 자수와 편물로 아름답게 수놓아진 장식적인 주머니에 바느질 도구를 넣어 허리띠에 매달고 다녔다.

17세기에는 르네상스 이후 경제력에 활기를 띄게 되었고, 프랑스가 세계상업의 무대가 되면서 프랑스 모드가 세계 모드라는 성격을 띄게 되었으며 의상, 장신구, 공예품, 가구 등의 모든 생활 물품을 필요 이상으로 꾸미면서 극히 호화스럽고 생동감 넘치는 예술양식인 바로크시대로 다시 호화스런 치장은 의복뿐만 아니라 장신구, 휴대품에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당시 주머니는 레이스나 태슬 장식이 있는 주머니로 벨트에 향주머니, 거울, 열쇠 등과 함께 달고 다녔으나 전시대에 비해 많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¹⁵⁾.



<그림9> 17C 프랑스 실크 신부 주머니
Hendrikje Ivo (2004).
Bags. Amsterdam: The
Pepin Press, p.46

또한 17세기에는 남녀모 두 중요한 편지나 종이를 letter case에 넣어서 다녔었다. 그 모양은 매우 다양한데, 가죽, 실크, 비즈와 밀짚으로 된 것이 유행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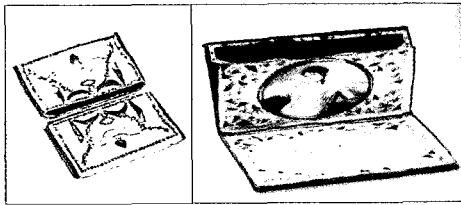
이 letter case는 선물이나 기념품으로도 많이 쓰였다16).

1690-1760년 사이에 프랑스에서는 신부 주머니가 제조되었는데, 작고 납작한 이 가방은 실크로 만들어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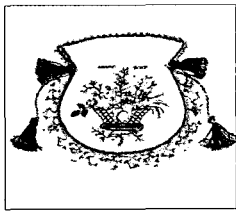
으며 신부와 신랑의 모습을 회화 작품처럼 수놓아서 장식을 하였다17).

프랑스 혁명이 끝난 집정부 시기인 1795-1799년은 핸드백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때에는 의상이 고대 로마와 그리스의 클래식한 모드의 재생으로 신체가 완전히 보이는 얇은 옷감으로 드레스를 만들어서 입는 것이 유행이었다. 의상에 포켓이 살아지면서 새롭게 레티클(reticle)이라고 불리는 작은 주머니가 유행하였다. 여기에는 돈이나 작은 손수건, 이름표, 향수 등 작은 개인 소지품을 넣어 손에 들고 다녔다. 레티클은 19세기 초에서 중기까지도 변형되어서 많이 사용되었고 다양한 소재로 만들어졌다. 당시 레티클은 여성 전용의 실용성을 겸한 장신구로 여성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으며 이는 현대 여성 핸드백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18). 레티클은 여러 가지 모양과 크기로 만들어졌는데, 얇은 정사각형 모양, 직사각형모양, 둥근 주머니 모양 등에 꽃과 여러 가지 패턴으로 자수를 놓아서 장식하였다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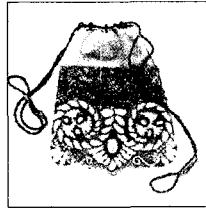
19세기 중반부터는 생활이 다양해지고 여성의 활동이 증가되면서 주머니 모양보다는 손가방(satchel)이 등장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캔버스나 가죽에 짧은 손잡이가 달린 단순한 것이었으나 후에 금속의 프레임(frame)장식이나 자물쇠 장식까지 나타났다20).



<그림10,11> 17C 프랑스 실크 자수 lettercase
Hendrikje Ivo (2004). Bags. Amsterdam: The Pepin Press,
pp.53-54



<그림12> 18C 프랑스 실크자수 레티클
Hendrikje Ivo (2004). Bags.
Amsterdam: The Pepin
Press, pp.84-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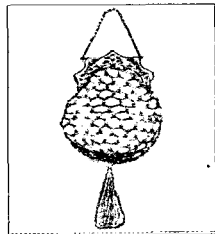
<그림13> 19C초 프랑스 벨벳 레티클
Hendrikje Ivo (2004).
Bags. Amsterdam: The
Pepin Press, pp.84-85

3) 문양 및 상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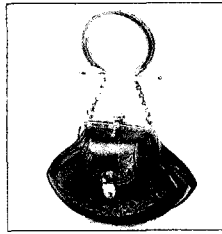
프랑스 주머니의 문양은 주로 식물문양과 꽃 문양이 많이 쓰였다. 주머니의 상징성은 한국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중에서도 몇 가지 요소를 찾을 수 있었다.

1) 가문의 상징: 부유한 집안에서는 주머니에다가 coat of arms(가문의 상징 마크)를 금속실로 자수를 놓았다. 이 상징마크는 주로 꽃과 함께 수놓아졌으며, 신분의 상징을 나타내었다.

2) 사랑과 충성: Letter case주머니에는 주로 큐피트, 하트, 사랑의 여신 비너스, 두 마리의 개(충실함의 상징), 두 마리의 새(약혼의 상징) 그리고 닻(희망의 상징)을 수를 놓아서 사랑과 충성을 기원하는 뜻을 담았다21).



<그림14> 19C 비즈로 장식된 프레임 주머니
Hendrikje Ivo (2004).
Bags. Amsterdam: The
Pepin Press, pp.68,120



<그림15> 19C 가죽 프레임주머니
Hendrikje Ivo (2004). Bags.
Amsterdam: The Pepin
Press, pp.68,120

3. 한국과 프랑스의 주머니 비교

1) 형태

한국의 주머니는 시대와 관계없이 그 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둥근 모양의 두루 주머니와 각진 귀주머니로 나뉜다. 프랑스의 주머니의 형태는 시대별로 여러 가지의 주머니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형태는 한국의 두루 주머니와 비슷한 둥근모양의 주머니와 네모난 모양의 어깨에 끈이 부착되어있거나, 주름을 잡을 수 있는 주머니이다. 두 나라의 주머니 형태는 모양이 거의 흡사한 두루 주머니 형태를 찾아볼 수 있고, 우리나라의 담배쌈지와 프랑스의 편지봉투 모양의 주머니 또한 형태가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프랑스 주머니 형태 중에 네모난 레티클 주머니는 우리나라에서 20세기 초에나 볼 수 있었던 오늘날의 핸드백 형태였다.

2) 용도

한국과 프랑스의 주머니 용도를 살펴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 번째로 두 나라 모두 의복에 포켓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나 개인물건을 넣고 다니는 용도로 주머니가 쓰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음력 정월 첫 해일에 왕, 왕비 및 왕대비가 가까운 신하에게 주머니를 하사하였고 이를 궁낭이라 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작은 주머니를 새해 첫날 유럽의 각 나라에 꽃잎이나, 향이 담긴 가루를 담아서 하사하였다고 한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혼례 때 신랑이 차는 주머니를 황낭이라 하여 다남의 의미를 상징하였고, 오방낭은 혼인 때에 함에 넣는 오방색의 주머니로 길상의 상징성을 겸하였었다. 프랑스에서도 혼례주머니가 제조되었는데, 신랑 신부의 모습을 수를 놓거나, 여러 가지 아름다운 장식으로 수를 놓았다고 한다. 혼례주머니 외에도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유럽국가에서 작은 주머니 안에 돈을 넣어서 혼례 선물하는 것이 풍습

이었는데, 동서양 모두 혼례를 중요시하였으며, 주머니에 의미를 담아 쓰였던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향낭은 향을 넣는 주머니로 조선시대에 궁중의 왕비나, 공주, 양반계층 부녀들의 장신구로 사용되었는데, 프랑스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주머니에 향을 넣고 아름답게 수를 놓아서 가지고 다녔던 것을 알 수 있다.

두 나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돈 주머니, 담배쌈지, 안경집, 부채집, 버선본 집 등 용통성이 있는 주머니와, 향주머니, 바늘집, 장도집, 노리개겸 장식적의미로 차고 다니던 주머니 등으로 용도에 따라 주머니를 분류하여 형태, 문양, 상징성의 차이를 구분 할 수 있다. 이에 반면 프랑스에서는 주머니의 용도로 그 안에 돈과 개인소지품들을 함께 넣어 다녔지만 시대별로 나누어서 주머니의 형태와 장식성의 변화를 살펴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주머니와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3) 문양 및 상징성

한국의 주머니에는 금박이나 자수로 문양을 수놓았는데, 문양은 크게 동물문, 식물문 중심의 자연문양과 길상문양, 장생문양, 기하학적 문양 등 여러 문양이 함께 쓰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면 프랑스에서는 주머니에 주로 자수로 수를 놓았는데, 꽃문양과 식물줄기 문양 등을 주로 사용하였다. 기하학적 문양에서는 하트 무늬를 수를 놓기도 하였다.

한국은 예부터 상징적인 의미를 중요시하여 주머니에서도 크게 4가지의 상징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혼인 때 신랑이 차는 주머니는 자손번성의 의미를 갖고 있었고, 음력 첫 해일에 임금 및 왕대비가 가까운 신하에게 하사하던 비단주머니는 벽사의 미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어린이의 돌 주머니로, 오방색 주머니를 채워주는데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복운을 내포하는 복주머니, 시신의 머리카락, 손톱, 발톱을 넣던 오낭, 그리고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로 곡종을 태워 주머니에 넣어 젊은 환관들이 여러 신하들에게 나눠주던 주머니들이 있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여러 상징성

을 내포하는 주머니를 많이 사용하였다.

그에 비해 프랑스는 상징성 보다는 용도로 주머니를 사용하는 의미가 컸지만, 상징성 또한 찾아 볼 수는 있었다. 프랑스의 귀족들은 종종 주머니에 가문의 상징마크를 자수를 놓아서 신분의 상징을 나타내었다. 또한 편지나 중요한 문서를 넣고 다니던 letter case 주머니에는 사랑과 충성의 의미를 상징하는 큐피트, 하트, 사랑의 여신 비너스, 두 마리의 개와 새, 그리고 닳을 수를 놓았다.

III. 결론

가방은 팔이나 손에 들고 다니면서 간단한 소지품을 넣는 도구이자 장식적이면서 실용적인 역할을 하는 장신구로서 오늘날 여성들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필수품이라 할 수 있다²²⁾. 가방은 수세기 전부터 남녀 모두에게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였으며 의복에 포켓이 없었기 때문에 가방과 주머니는 돈이나 소지품을 휴대하기 위하여 남녀노소가 모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조선 중기 시대와 프랑스의 르네상스 전후하여 16세기 이후부터 20세기 초까지에 나타난 주머니의 역사를 살펴보고 주머니의 다양한 종류, 상징성, 용도를 비교해 보았다.

1. 한국

한국의 주머니는 크게 둥근모양의 두루주머니와 각진 귀주머니로 나뉘며 주머니를 살펴보면, 실용성, 상징성, 장식성을 겸비한 도구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은 예부터 길상의 의미를 중요시하여 주머니에도 각기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주머니 겉면에 수를 놓거나, 안에 내용물에 의미를 두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오방낭안에 목화씨(9개), 밤(3개), 대추(3개), 팥을 넣어 자손번창의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적, 청, 황, 흑, 백색의 비단조각을 동서남북 방위에 맞추어 만든 주머니로 오방색을 모두 갖추면 좋다는 음양오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2. 프랑스

프랑스의 주머니는 종류별보다는 시대별로 각기 다른 주머니를 살펴볼 수 있으며 상징성 보다는 실용성과 장식성을 중요시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프랑스 주머니는 벨벳이나 실크, 새틴 등의 고급스런 천에 화려하게 수를 놓거나 구슬로 엮어 장식을 하였고 가방의 끝에 태슬이나 리본장식을 하였다. 그 안에는 주로 돈, 향이 담긴 가루, 거울, 열쇠 등 개인의 소지품을 넣고 다녔다. 귀족 같은 경우는 그들의 가문의 상징마크를 주머니에 수를 놓기도 하였고, 식물문양, 꽃문양을 주로 수를 놓아서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특히 19세기에 유행하였던 레티클 주머니는 현대 여성 핸드백의 시작으로 볼 수 있어서 핸드백 역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 진다.

오늘날과 같이 교통 및 문물수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조선조와 16세기경의 프랑스에서 사용되었던 주머니의 용도에서 몇 가지의 유사점이 발견된 것은 매우 흥미로운 점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조선조에서는 정초에 왕이나 왕비가 신하에게 복을 빌고 벽사의 으로 궁낭을 하사한 것과 프랑스에서 새해 첫날에 꽃잎이나 향이 담긴 가루를 담아서 하사한 것은 그 뜻은 차이가 있으나 정초에 신하에게 주머니를 하사한 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조선조에서는 혼인예물로 오방낭에 패물을 넣어주는 풍습이 있고 프랑스 및 유럽국가에서는 작은 주머니 안에 돈을 넣어 혼례 선물로 주었던 것도 유사한 풍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비록 먼 거리와 문물의 차이는 있어도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염원과 풍습에서 위에 언급한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되어 진다.

참고 문헌

- 1) 이정애 (1989). 섬유핸드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3.

- 2) 정홍숙, 김은하 (2001). 핸드백의 역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생활과학논집* 14, p.205.
- 3) 국립민속박물관 (1997). *한국복식 2천년*. 서울: 도서출판 신유, p.274.
- 4) 권영결 외 (2002). *솜이 만드는 미래*. 서울: 도서출판 국제, pp.98-99.
- 5) 차명순 (2002). *전통매듭과 현대의 만남*. 서울: 출판사 느림, p.21.
- 6) 김옥현 (2002). 한국의 주머니 연구 및 현대화. *동덕여자 대학교 예술논총* 5, p.2.
- 7) 백영자, 최혜율 (2004). *한국복식의 역사*. 서울: 경춘사, p.320.
- 8) 궁중유물전시관 (2002). *황실복식의 품위*. 서울: 미술문화, p.266-267.
- 9) 김옥현 (2002). Op. cit., pp.4-5.
- 10) Hendrikje Ivo (2004). *Bags*. Amsterdam: The Pepin Press, p.14.
- 11) 정홍숙, 김은하 (2001). Op. cit., pp.190-191.
- 12) Hendrikje Ivo (2004). Op. cit., p.14.
- 13) Tudor, L. (2005). *Embroidered Purses design & techniques*. London: Batsford, pp.13-14.
- 14) Hendrikje Ivo (2004). Op. cit., p.34.
- 15) 정홍숙, 김은하 (2001). Op. cit., p.193.
- 16) Hendrikje Ivo (2004). Op. cit., p.48.
- 17) Hendrikje Ivo (2004). Op. cit., p.34.
- 18) Johnson, A. (2002). *Handbags*. New York: Workman Publishing Co., pp.xxii-xxiii.
- 19) Helene David-Weill, Jean-Louis Dumas (2005). *Carried Away all about bags*. New York: The Vendome press, p.163.
- 20) 장경선 (1989). 핸드백디자인에 대한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10-11.
- 21) Hendrikje Ivo (2004). Op. cit., p.48.
- 22) 정홍숙, 김은하 (2001). Op. cit., p.188.